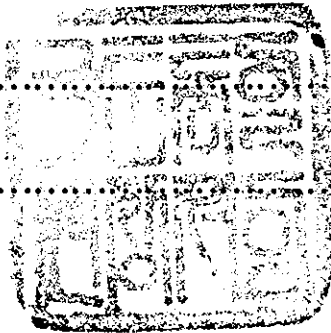


# 目 次

1. <u>南北共同聲明</u> .....	1
2. <u>直通電話架設 및 運營節次에 關한</u> <u>合意書</u> .....	5
3. <u>背景說明</u> .....	9
4. <u>記者會見</u> .....	15



2012

# 1. 南北共同聲明

最近 平壤과 서울에서 南北 關係를 改善하며 갈라진 祖國을 統一하는 問題를 協意하기 爲한 會談이 있었다.

서울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이 1972年 5月 2日부터 5月 5日까지 平壤을 訪問하여 平壤의 金英柱 組織指導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으며 金英柱部長을 代身한 朴成哲 第2副首相이 1972年 5月 29日부터 6月 1日까지 서울을 訪問하여 李厚洛 部長과 會談을 進行하였다.

이 會談들에서 雙方은 祖國의 平和統一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共通된 念願을 안고 虛心坦懷하게 意見을 交換하였으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는데서 큰 成果를 거두었다.

이 過程에서 雙方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南北 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緊張의 高潮를 緩和시키며 나아가서 祖國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들에 完全한 見解의 一致를 보았다.

1. 雙方은 다음과 같은 祖國統一 原則들에 合意를 보았다.

첫째,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적으로 解決하여야 한다.

둘째, 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據하지 않고 平和의 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세째,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于先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여야 한다.

2. 雙方은 南北 사이의 緊張 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雰圍氣를 造成하기 爲하여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裝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 事件을 防止하기 爲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기로 合意하였다.
3. 雙方은 끊어졌던 民族的 連繫를 回復하며 서로의 理解를 增進시키고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南北 사이에 多方面的인 諸般 交流를 實施하기로 合意하였다.
4. 雙方은 지금 온 民族의 巨大한 期待속에 進行되고 있는 南北 赤十字會談이 하루 빨리 成事되도록 積極 協調하는데 合意하였다.
5. 雙方은 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 사이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直接,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爲하여 서울과 平壤 사이에 常設 直通電話를 놓기로 合意하였다.
6. 雙方은 이러한 合意事項을 推進시킴과 함께 南北 사이의 諸般問題를 改善 解決하며 또 合意된 祖國統一 原則에 基礎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李厚洛 部長과 金英柱 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會를 構成,

運營하기로 合意하였다.

7. 雙方은 以上の 合意事項이 祖國統一을 一日千秋로 渴望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念願에 符合된다고 確信하면서 이 合意  
事項을 誠實히 履行할 것을 온 民族앞에 嚴肅히 約束한다.

서로 上部의 뜻을 받들어

李 厚 洛

金 英 柱

1972年 7月 4日

서울-平壤間 直通電話의 架設 및  
運用節次에 關한 合意書

## 2. 直通電話架設 및     運營에 관한 合議書

## 1. 直通電話의 設置目的

祖國의 平和統一을 自主的으로 實現하기 爲한 課業과 其他 南北間에 提起되는 問題 및 不意의 事態에 對備하는 問題를 直接 迅速 正確히 處理하기 爲하여 서울—平壤間 直通電話 (以下 直通電話라고함)를 設置 運用한다.

## 2. 直通電話器 設置場所

直通電話器는 서울에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의 事務室 그리고 平壤에는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의 事務室에 各各 設置한다.

## 3. 運用時間

直通電話는 日曜日과 公休日을 除外하고 每日 9時부터 12時 까지 16時부터 20時까지의 사이에 運用하며 雙方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以上에 指定된 時間과 날짜에 拘碍됨이 없이 事전에 날짜와 時間을 設定하여 運用한다.

## 4. 通話者

直通電話의 通話者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한다.

서울에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그가 指名한 3名으로 하며 平壤에서는 金英柱 組織指導部長과 그가 指名한 3名으로 한다.





# 背 景 說 明

## 南北共同聲明發表에 즈음한

###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의 背景說明

1972. 7. 4

그러면 제가 왜 平壤을 訪問하였으며, 또 이러한 共同聲明까지를 發表하게 되었느냐 하는데 對한 說明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年 12月 21日 本人이 中央情報部長으로 就任한 以來 本人은 大統領閣下의 特別하신 指示에 따라, 北韓의 內部를 細密히 觀察하고, 檢討하고, 分析判斷하는데 最優先的精力을 기울여왔던 것입니다.

그 結果 當部는 結論적으로 北韓은 4大軍事路線을 더욱 固守하고 또 全住民을 組織化하고 即刻 動員이 可能하겠음 社會生活를 規制化하는 等等으로 完全 戰爭準備를 갖추어 南侵의 機會만을 노리고 있다는 判斷에 到達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判斷을 얻은 當部는 昨年 年末 이 事實들을 國會의 重鎮들, 또 全國務委員, 其他 政策樹立要人들에게 屢累히 強調, 說明의 報告를 드렸으며, 及其也 昨年 12月 6日 우리는 國家非常事態를 宣布하여 總力安保로 이에 對應하기로 한 事實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 南北共同聲明發表에 즈음한

###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의 背景說明

1972. 7. 4

그러면 제가 왜 平壤을 訪問하였으며, 또 이러한 共同聲明까지를 發表하게 되었느냐 하는데 對한 說明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年 12月 21日 本人이 中央情報部長으로 就任한 以來 本人은 大統領閣下의 特別하신 指示에 따라, 北韓의 內部를 細密히 觀察하고, 檢討하고, 分析判斷하는데 最優先의精力을 기울여왔던 것입니다.

그 結果 當部는 結論적으로 北韓은 4大軍事路線을 더욱 固守하고 또 全住民을 組織化하고 即刻 動員이 可能하겠음 社會生活를 規制化하는 等等으로 完全 戰爭準備를 갖추어 南侵의 機會만을 노리고 있다는 判斷에 到達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判斷을 얻은 當部는 昨年 年末 이 事實들을 國會의 重鎮들, 또 全國務委員, 其他 政策樹立要人들에게 屢累히 強調, 說明의 報告를 드렸으며, 及其也 昨年 12月 6日 우리는 國家非常事態를 宣布하여 總力安保로 이에 對應하기로 한 事實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昨年 年末의 그 非常措置가 없었던들 果然 그들이 오래前부터 말해오던 “首領의 回甲은 서울에서”하던 그 無謀한 試圖가 없었으리라고는 아무도 斷定的으로 否定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非常事態宣布로 總力安保의 體制를 굳힌지 半年 休戰線의 北과 南은 한쪽은 戰力強化, 또 한쪽은 그에 對應하는 戰力強化 等等으로 休戰線의 緊張은 더욱 高潮되어 가고 있었으며 一觸即發, 무슨 事態가 언제 어디서 突發적으로 터질지 아무도 豫想할 수 없는 事態로 進行되어가고 있었음을 政府는 直感해 왔던것 입니다.

勿論, 休戰線上에서 어떠한 事態가 突發하더라도 莫强하고, 勇猛한 忠誠스러운 우리 60萬 大軍은 能히 그 事態를 맞아 되받아 싸워 이길 것이라는 우리의 信念에는 變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犧牲될 莫甚한 人的被害와 財産的 損失을 생각할때, 더구나 6·25의 慘狀을 回想하고 그보다 더한 慘狀일 것임에 想到했을 때 政府는 期於코 戰爭이라는 悲劇을 무슨 方法으로서라도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하겠다는 基本方針을 再確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爲해서는 于先 北韓當局과 對話를 나누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使命을 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本人은 여러가지를 檢討한 끝에 對話의 相對를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으로 擇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後 本人은 지난 3月 金英柱部長에게 直接 會談을 하고 싶다는 나의 뜻을 傳達하고, 第3國이나, 國內, 어디에서든지 들이 만나 會談하자고 提議했던 것입니다.

그後 金部長은 나의 提議를 받아들여 平壤에서 하자 하기에 本人은 지난 5月 2日 平壤에 갔던 것입니다.

내가 平壤에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大統領閣下의 그 決心이 大端하였으며 또 本人自身도, 實로 悲壯한 覺悟로 板門店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5月 2日부터 5日까지 平壤에 滯在하는 동안 本人은 金英柱部長과 두차례, 그리고 金日成과도 두차례의 會談을 가졌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後, 本人은 이 會談을 더욱 前進시키기 爲하여 金英柱部長을 서울로 招請하였으나, 健康上 事情으로 오지못하고 그의 代理로 朴成哲 副首相이 지난 5月 29日부터 6月 1日까지 서울을 訪問하여, 本人과 두차례의 會談을 가졌으며, 또 朴大統領께서도 한차례 面接을 받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會談에서 結局 生産된 것이 오늘 發表한 共同聲明의 內容들입니다.

이제 겨우 政治的約束만이 끝났습니다. 問題는 그 約束을 얼마만큼 서로 確實히 履行하느냐 하는 行動의 表示過程으로 이제 막 들어가기 始作한것 뿐입니다.

四半世紀동안 分斷된 祖國, 서로 싸워왔던 分斷民族, 정말 긴 對話없는 對決의 持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對話없는 南北對決에서 對話있는 南北對決의 時代」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서로 思想과 理念이 極과 極으로 다른 體制끼리의 對話는 참으로 어려운 對話인 것이며, 어느모로는 對話없는 對決보다도 더 어려운 對決이기도 한 것입니다.

對話가 곧 平和가 아닙니다.

對話는 平和를 摸索하는 한 賢明한 方法에 不過한 것입니다.

南北對話는 世界 歷史上, 그 어느 對話보다도 어렵고 힘든 對話입니다.

그러므로 이 對話를 뒷받침해 줄 總力安保는 그 어느때 보다

도 重要하며, 對話에서 좋은 成果가 나올때까지 國民여러분은 결코 앞지른 생각을 삼가하여, 忍耐와 總和로서 이 對話를 激勵하고, 指導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本人은 아까 共同聲明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民族앞에 우리가 合意事項을 誠實히 履行할 것을 約束한 만큼 나도 다시 우리 國民앞에 제가 할 일을 誠實히 履行할 것을 다짐하는 約束을 드립니다.

國民여러분께서도 이 約束을 履行하는데 있어서 많은 協調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添加할 것은 우리 大統領 閣下의 外交方式은 말로서의 外交가 아니라 언제나 行動으로서 表示하는 外交라는 것을 國民 여러분들은 깊이 理解하시고 비록 沈黙이 繼續되는 때가 있더라도 무엇인가 構想하시고 무엇인가 行動에 옮기신다는 이 事實을 認識하여 주실것을 당부하면서 저의 背景說明을 끝냅니다.



## 4. 記 者 會 見

人事：(東洋通信 記者)

國家安保業務를 遂行하시느라 바쁘신데도 不拘하시고 이와 같은 會見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大端히 感謝합니다, 李部長께서 發表한 內容의 歷史的 重大性에 비추어 이와같은 合意에 이르기까지의 經緯와 具體的인 內容에 對하여 궁금한 點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펼칠 質問에 對하여 仔詳하고 具體的인 答辯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問：(京鄉新聞 記者)

지금까지 우리 나라 統一方案의 大原則은 人口比例에 依한 南北韓 總選舉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共同聲明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北韓과의 直接交涉을 통한 統一追求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統一方案의 轉換이 오게된 理由가 어디에 있습니까?

答：이번에 合意본 統一原則은 實質的으로 우리의 統一方針에 아무런 變動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면 統一原則을 세가지로 이야기 했는데,

첫째,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解決해야 한다는 것은, 自主的으로 統一하려 하지 않고 막연하게 外勢에 依存해서는 안된다는 뜻과, 自主的으로 統一할 수 있는데도 不拘하고 어떤 不當한 外勢의 干涉으로 因하여 統一努力을 拋棄해서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統一原則은 UN監視下에 南·北韓 土着人口 比例에 따른 總選舉가 우리의 方針인바 저는 이 外勢란 用語는 여러가지 意味로 쓰이지만 UN이라는 것은 外勢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UN은 世界權能機構인 만큼 UN을 外勢라고 斷定지어서 不當한 勢力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方針엔 變動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平和的으로 統一하자는 것은 本來 우리의 基本方針이므로 여기에도 變動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思想과 理念을 超越해서 于先 한 民族으로 團結해 보자는 것은 역시 같은 白衣民族으로서의 分斷된 설음을 깨뜨리고 우리 民族의 念願을 政治的으로 表現한 것이므로 實際 우리 政府의 統一原則에는 變動이 없고 오히려 再確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問：(大韓日報 記者)

우리는 建國以來 反共을 國是로 하여 이것을 土臺로 國論을 統一해왔고 憲法을 비롯한 모든 法體制도 그렇게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點에서 볼때 李部長의 平壤訪問이나 金英柱의 서울訪問許容, 나아가서는 이번 共同聲明發表, 이런 것은 “키신저”의 中共訪問과의 性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國內法에서 볼때 違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國民들은 統一을 渴望하고 있지만 이런 重大한 큰 變

化에 對해서 相當히 唐慌 할것이 確實합니다.

그런 點에서 앞으로 어떤 方向으로 國論을 統一할 것이요?

答 : 먼저 背景說明에서 말씀드렸지만 休戰線의 緊張이 高潮되어 어떠한 方法으로서라도 戰爭을 막아야 겠다는 努力에서 大統領의 統治權 行使에 依해 제가 對話를 摸索하기 위해 平壤에 갔던 것이며, 그 結果에 따라 이러한 共同聲明을 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反共을 國是의 第 1로 삼고, 反共 및 勝共敎育을 많이 해왔습니다. 實際로 現在 어려운 段階에 들어가고 있으며 그것은 對話없는 對決에서 對話있는 對決로 옮겨가는 이 冒險은 實로 우리에게 重大한 刹那입니다.

나는 自由民主主義의 基本 原則은 信仰과 思想의 自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反共을 國是의 第1로 삼는 것은 우리 周邊의 共產主義가 酷毒하고, 그 酷毒의 度는 線을 넘어서 南侵까지 恣行했고, 共產主義 蠻行으로 數없는 人命 被害를 낳았던 것이며 또 우리 內部的으로 共產主義者의 蠻行이 度가 넘쳤었습니다.

即 共產主義者들의 政治活動이나 모든 活動이 다른 理念, 다른 主義들과는 다르며, 간혹 非正常的인 鬪爭方式을 使用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共產主義를 막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眞正 우리 周邊의 共產主義者나 또 우리 옆에 있는 共產主義者들이 그 鬪爭方式을 바꾸어 正常的으로 政治活動

을 하는 그러한 誠意의 段階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많은 變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北韓이 約束한 것을 어떻게 誠意있게 나오는가를 보아 가면서 우리의 施策의 一部도 그에 알맞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對話가 不法이 아니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戰爭을 막기爲해서는 對話를 해야겠고, 對話에서 戰爭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음 問題이고, 一旦 對話를 始作한 以上 이를 보다 推進시키고 보다 폭넓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法的, 制度的인 面에서 어떤 것은 바꾸고, 어떤 것은 補強하고, 어떤 것은 新設하고 해서 完全히 새로운 時代에 알맞는 制度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는 政府와 立法部 當局이 相議해서 處理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問：(東亞日報 記者)

韓半島에는 아직도 緊張狀態가 繼續되고 있다는 것이 從來의 一般的인 見解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發表된 南·北共同聲明을 듣고 보니 南과北, 雙方은 이미 緊張緩和와 統一原則까지 合意했다는 놀라운 消息인데 앞으로 韓半島에는 이것으로 果然 緊張이 解消되는 것인지. 意見を 말씀해 주십시오.

答：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韓半島는 世界 어느곳 보다도 높은 緊張狀態에 있습니다.

緊張이 高潮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大統領분부에 따라 平壤에 갔었고, 또 이러한 聲明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緊張을 緩和시켜 보자고 約束한 것에 不過한 것이며, 앞으로 緊張이 어떻게 緩和될것이나, 하는것은 서로 約束을 어떻게 誠實히 履行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對話가 곧 緊張緩和나 平和가 아니며 對話는 平和와 緊張緩和를 摸索하는 賢明한 方法에 不過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對話가 始作되었으니 그것은 곧 緊張이 緩和되었다던가, 이제는 우리가 마음놓아도 좋다는 생각을 해선 안될 것입니다.

緊張緩和를 위해서 南北間에 對話가 이루어지면 그럴수록 우리가 한데 뭉쳐 對話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緊張은 反對로 高潮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國民總和로서 平和를 摸索하는 對話를 뒷받침 해주는 體制, 이것이 무엇보다도 아쉽다는 것을 한번더 強調합니다.

問：(서울新聞 記者)

오늘의 南北共同聲明을 契機로 해서 從來의 南·北對決에서 平和적으로 統一을 指向하는 對話體制로 轉換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같은 對話體制로 轉換하는데 있어서 統一의 主導權을 掌握하기 위해서는 國內體制를 再編할 構想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構想은 어떤것인지 또 그 構想에는 政界改編問題도 包含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答：政界改編問題는 中央情報部長이 答辯할 限界를 넘은것 같습니다.

過去 南·北 對決은 對話가 없는 反目的 對決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對話를 통한 對決을 하는 時代에 들어간 以上 過去와 같은 그러한 體制와 法的 뒷받침, 또한 過去와 같은 그러한 保守끼리의 反目, 이러한 것이 果然 우리의 對話에 강한 뒷받침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야 할 問題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政界改編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中央情報部長이 答辯할 限界를 넘은 質問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答辯은 避하겠읍니다.

題：(東亞日報 記者)

오늘 發表된 共同聲明에서 南·北 雙方은 相互 中傷, 誹謗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와 關聯하여 앞으로 北傀라는 用語 및 金日成 等の 呼稱은 어떻게 使用할 것인지, 그리고 南北間의 對決體制에서 對話體制로 바뀔에 따라 現行의 여러가지 制度를 고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範疇에 反共法도 包含되는 것입니까?

答：南·北間에 中傷, 誹謗하지 말자는 것은 한 民族으로서 있어야 할 모습을 政治的으로 表現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思想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욕하고, 서로 中傷, 誹謗하는 것은 같은 民族으로서도 悲劇이지만 다른 民族이 볼 때도 우리를 後進國家로 보기쉬운 것이며, 서로 事實이 아닌 問題를 갖고 욕을 한다던지, 서로 理論的인 問題를 넘어서 헐뜯고 욕하는 것은 삼가하자, 다시 말하면, 우

리끼리의 醜態를 남에게 보이지 말자는 것을 斷的으로 表現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限界가 中傷, 誹謗이나 하는 問題는 앞으로 더욱 南·北間에 이야기 되어야 할 問題이라고 생각하나 저 個人意見으로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北韓傀儡니, 또는 北韓에서는 南朝鮮 傀儡니 하는 用語도 무엇인가 다른 좋은 表現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南·北 對話를 爲해서 制度를 바꾸어야 된다고 斷的인 表現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對話의 對決로 이끌어 나가기 爲해서 우리의 制度上 어떤 法은 바꾸고, 어떤 法은 없애고, 어떤 法은 새로 만들고 하는 一大制度 強化의 措置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意見이고, 그러한 問題는 어디까지나 政府와 立法府가 할 問題임으로 저로서는 斷定的인 答辯을 못하겠습니다.

問：(朝鮮日報 記者)

李部長의 平壤訪問으로 南·北間의 政治協商이 始作되었다고 불수가 있는데 外信을 보면 北韓 金日成이가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자는 것과 서로 減軍을 하자는 등의 提議를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李部長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答：제가 平壤에 갔다온 사람으로서 禮儀上 지나친 誹謗은 公式席上에서 삼가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리가 確實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北韓은



언제나 實踐 不可能한 앞지른 提案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相對方이 받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豫見하고 提案을 하는 것이며,

얼핏 보기에는 가장 좋은 提案같지만 이것은 말의 宣傳이고 말의 外交입니다.

그러나 우리 大統領 閣下께서 하시는 外交나 宣傳은 어디까지나 誠實하게 할 수 있는 일만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도 行動으로 表示하시는 것이 그 쪽과 다른 典型的인 外交宣傳의 方式입니다.

예를 들면 당장 頂上會談을 하자는 것도 앞지른 이야기입니다.

저와 金英柱 部長이 만나서 南·北問題를 討議하는 節次上에서도 數많은 難關이 있었는데 말로만 하기 쉬운, 예를 들면 朴大統領과 만나서 會談할 用意가 있다는 말은 누구던지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올 結果가 무엇인가 하는것은 내가 答辯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그 쪽의 外交宣傳 方式이 그렇다는 것을 理解해 주시고 到底히 非現實的인 理想主義의 表現을 가지고, 내가 비방하기는 어렵지만 그쪽의 手法을 想起시키면서 答辯에 對할가 합니다.

問：(中央日報 記者)

李部長이 平壤의 金英柱部長과 會談한 것은 人道的인 南·北赤十字會談의 次元에서 보면 急激한 發展現象으로 보이는

데 앞으로 李部長과 金部長이 繼續會談을 하실 것이며 그  
以上の 高位會談을 열 可能性이 있는지, 또 美國이나 日本  
과 같은 友邦들과 事前協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形  
式을 取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答: 美國이나 日本等 友邦에게 事前 協議가 있었는지의 與否는  
언제인가 歷史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確實히 말씀 드리겠읍  
니다. 이것은 決코 友邦과도 相議없이 直接 韓半島의 危機  
를 우리 스스로 풀어 보겠다는 念願에서 韓國政府가 單獨으  
로 한 것이며 지금 發表하는 直前に 外務部長官이 友邦에게  
通告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金英柱部長과 다시 만나느냐 하는 問題는 共  
同聲明에서와 마찬가지로 調節委員會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  
에 앞으로 자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調節委員會가 언제 열릴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決定된 바 없고 될 수 있으면 빠른 時日內에 할 생각  
입니다.

問: (韓國日報 記者)

李部長께서 平壤에 가셨을 때 金日成과 두차례 만나셨다고  
하는데 會談內容과 會談雰圍氣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答: 저와 金日成과의 會談이나 또는 金英柱와의 會談內容, 이것  
은 具體的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그리 그러한 會談의 結果로 이러한 共同聲明書가  
나왔다는 事實을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談 雰圍氣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金日成, 金英柱部長모 두 제가 平壤에 왔다는 事實을 놀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나름대로 悲壯한 覺悟를 가지고 板門店을 넘었으며 그때 저를 보낼까 말까 하시던 大統領 閣下의 決心도 정말 大端하셨고 참으로 歷史的인 瞬間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서는 오히려 마음이 놓여졌고, 될대로 되라 하는 그러한 心情이었으며 平壤에서 받은 待接은 比較的 융숭한 待接을 받았습니다.

事實 가있는 동안은 몰랐지만 다시 板門店 自由의 집으로 되돌아 왔을때 비로서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단순한 個人的인 表現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問: (同和通信社 記者)

從來의 經驗과 敎訓으로 미루어 볼때 北傀와의 約束이 果然 誠實이 이루어 질지 궁금합니다.

北韓이 만일 이런 約束을 안지켰을때 우리 政府가 取할 態度는 自明할 일이지만 李部長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相互交流 대목에 對해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答: 約束을 지키겠는가 안지키겠는가 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共同聲明 7項에서 分明히 밝힌바와 같이 雙方은 誠實히 履行할 것을 民族앞에 約束했으므로 南이나 北이나, 다같이 約束을 誠實히 履行할 것이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約束은 5千萬民族이 注視할 뿐만 아니라 世界 온 人類가 注視하는 만큼, 이 合意事項은 誠實히 履行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過去의 例를 보아서 北韓側이 果然 約束대로 履行 하겠는가 하는 問題는 저도 答辯하기 어렵고 또 여러분들도 過去에 當해보았으니 判斷에 맡기기로 하고 如何든 約束을 했으니 履行하리라고 믿읍니다.

約束 履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지나 두고보아야 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諸般 交流는 人的, 物的, 通信的, 社會的, 政治的 이러한 여러가지 交流를 말하는 것입니다.

問: (合同通信 記者)

앞으로 언제 調節委員會를 開催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現在까지 進行되어온 南·北赤十字會談과 이 調節委員會는 어떤 相互關係를 갖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答: 南·北赤十字會談은 어디까지나 人道的 問題이기 때문에 이것도 推進시키면서 並行해서 調節委員會도 推進시키겠습니다.

그러나 共同聲明에서 發表한 바와 같이 調節委員會는 南·北赤十字會談이 어떤 難關에 逢着했을때 이를 밀어주고 解決해주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問: (基督教放送 記者)

南·北間에 合意된 統一原則은 지금까지 金日成이 主張해 온 外勢排除에 依한 民族의 自主的, 平和的 團結로서 統一을 追求한다는 “슬로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北韓을 相對해서 우리가 念願하는 自由롭고 平和的인 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自信과 構想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答: 統一原則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變함이 없다는 것을 이미 說明드렸습니다.

그런데 共同聲明안에는 北韓 側이 宣傳的으로 強調해 왔던 內容도 있으나 그 內容에는 우리 政府가 항상 主張해 왔던 모든 것이 또한 100% 들어있다는 것을 想起하시기 바랍니다.

統一을 爲한 自主的인 努力, 이것은 相當히 어려운 問題입니다.

우리가 서로 社會制度가 다르기 때문에 理解를 시켜야 합니다.

平和的인 統一을 爲한 自主的인 努力, 이것은 굉장히 힘겨운 努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覺悟하시고 우리가 統一努力에 臨해야 하겠습니다.

問: (東亞放送 記者)

北韓內 權力構造에 있어서 金日成의 同生 金英柱의 位置를 說明해 주십시오.

答: 北韓에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金英柱部長을 對話의 相對로 擇했느냐 하는 것은 저나름대로 여러가지 理由가 많았습니다.

質門하신대로 金英柱部長은 金日成의 實弟이며, 黨內 政治委員이고, 中央委員이고, 黨의 가장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는 組織指導部長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實權者인가를 내가 表現한다는 것은 署名當事者에 對한 禮儀關係가 있으므로 一旦 제가 直接 答辯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探索해 주시기 바랍니다.

問：(東洋放送 記者)

大韓民國 要人으로 李部長께서 처음으로 平壤을 訪問했는데 滯在하는 동안에 現地에서 느낀 所感과 또한 서울을 訪問한 朴成哲이 서울에서 받은 印象 等 여러가지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點에 對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朴成哲 副首相에 對한 待接은 제가 平壤에서 받은 待接에 相應한 待接을 우리 나름대로 誠意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서울에서 資本主義 體制를 보고 어떻게 느꼈느냐 하는 問題는 내가 비록 눈치챈 것이 있다 하더라도 表現하기가 大端히 어려운 問題입니다.

제가 北韓에 가본 所感은 北韓도 共產主義 社會體制로 만들기 爲해 여러가지로 努力하는 편모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果然, 우리에게 比해서 어느 程度인가 하는 것은 제가 平壤에 갔던 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會談을 持續시켜야 하기 때문에 公式的으로 發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멀지 않아서 南·北交流가 實現되면 여러분들이 直接 北韓에 가실 機會가 있을 터이니 그때 직접 보시는 것이 더 正確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問：(KBS 記者)

앞으로 南·北對話의 “채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南·北 調節委員會라고 생각되는데 언제쯤 構成되고, 그 範圍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答: 金英柱部長과는 各 3~5名 程度의 委員으로 構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 하였으나 雙方 몇명으로 構成하고 어떻게 運營하느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아직 具體的인 合意를 보지 않았읍니다.

다만 이러한 原則만 合意하고 멀지않아 雙方의 案을 提示하여 調節委員會를 構成할 案을 確定지을 생각이며, 처음 만나는 날짜는 相對가 있으니까 서로 論議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時日內에 할 豫定입니다.

問: (文化放送 記者)

李部長께서 發表하신 南·北 共同聲明 가운데 雙方이 武力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爲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기로 合意했다고 하였는데 이 措置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答: 積極的인 措置를 取한다는 것은 雙方이 戰爭을 막기 爲해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자는 無限範圍를 表現한 것이고,

한가지 添言할 것은 停戰委員會와의 關係를 생각하시겠지만 停戰委員會는 어디까지나 休戰協定에 依據한 軍事停戰委員會이고 우리가 表現한 것은 순수 軍事的問題 以外에 어떤 形態나 方法을 다해서라도 戰爭을 防止하기 爲해 積極的인 努力을 다하자는 無限 努力의 範圍를 表現한 것입니다.

問: (“코리아 헤럴드” 記者)

李部長께서 말씀하신 제반 交涉條項에 對해서 人的, 物的,

通信的, 社會的, 政治的 交流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더 仔細히 말씀해 주십시오.

答: 제가 平壤에 갔을때 統一도 時急하지만 統一만을 爲한 政治會談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感情을 爆發시킬 수도 있으므로 政治會談에 앞서 서로 交流를 해서 相互 往來하면서 資本主義 社會와 共產主義 社會를 理解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고 누차 強調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北韓에 가보고 그들이 이쪽에 와보고 또 社會團體나 體育團體가 왕래하여 서로 交流해서 雙方을 理解하고 友誼를 增進시키는 것이 重要하다는 생각에서 諸般 交流라고 表現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記者 여러분들도 包涵되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交流를 하지 않고 封鎖된 狀態에서 北韓은 어떤 것이고 南韓은 어떤 것이냐에 對해 몇사람의 작난으로 曲解되고 있다는 이러한 狀態는 排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實際로 北韓에 가보아야만 果然 共產主義 社會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問: (“코리아·타임스” 記者)

平壤에서 金日成과 2次 會談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會談內容과 그 쪽에서 받은 印象을 말씀해 주십시오.

答: 金日成과의 會談은 2차례에 걸쳐 상당한 時間, 내가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 그 쪽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것은 말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다만 몇 차례의 會談結果로 共同聲明이 生産되었다는 것을 理解하시기 바랍니다.

問: (每日經濟新聞 記者)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例를 들어서 保安法이라던지, 其他 行政, 立法府에서 여러가지 制度的인 補完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非常事態와 關聯해서 國民들이 가져야 할 姿勢에 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共產主義와의 對決體驗은 表現하기 어려운 對決이 었읍니다.

例를 들면 우리가 겪었던 共產主義蠻行과 戰爭, 이런것들은 實로 처참한 對決이 었읍니다.

우리가 非常事態를 宣布한 것은 北韓과 戰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戰爭을 막고 平和를 追求해야 하겠다는 信念에서 取한 措置였읍니다.

또 南北對話는 世界史上 어느 對話보다도 어려우며, 過去에 겪었던 體驗에 비추어 戰爭못지 않게 어려운 對決입니다.

그러므로 이 對話를 成功的으로 밀고 나가 眞情한 平和를 찾기 위해서는 總力 安保體制를 구축하고, 國民總和로서 이 對話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眞正 우리가 바라는 平和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對話의 結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非常事態宣言으로 이루어진 國民總和體制가 南·北 對話에서 좋은 成果가 나올때까지 繼續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對話의 成果를 期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對話를 힘있게 밀고 나가고 對話없는 對決에서 對話있는 對決의 時代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法的, 制度的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事實만을 漠然하게 言及하고 어떤 法, 어떤 制度를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補完 하느냐 하는 것은 政治人들이 다룰 것이므로 더 言及하지 않겠습니다.

問：(韓國日報 記者)

李部長께서 平壤을 다녀 오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國民的인 關心과 職業意識으로서 興味를 느낍니다.

李部長께서 平壤을 가실때 單身으로 가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可能하면 그 名單을 發表해 주시고, 또 朴成哲을 따라 온 隨行員의 名單이나 “파티” 人員數만 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答：제가 平壤에 갈때는 저를 補佐하고 警護하기 위해서 세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名單은 밝히지 않기로 했고, 저쪽에서 올때는 朴成哲 副首相과 그 外 4名이 왔습니다.

問：(韓國日報 記者)

政治的 次元의 補佐官은 同行하지 않았습니까?

答：警護以外的 任務를 가진 實務補佐官 한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部長：여러분들 지루한 時間 感謝합니다.

이로서 오늘 記者會見을 全部 마치겠습니다. 끝